

## 전북 정읍지역 도로 주변림에 관한 연구

— 김재 원평에서 정읍 감곡 사이의 지방도 주변을 사례로 —

박 재 철

전주우석대학교 조경학과

### A Study on the Roadside Forest in Jungeup-Gun, Chunbuk-Do

— a Case Study on the Roadside Forest from Wonpyung to Kamgok —

Park, Jae-Chul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Chunju Woosuk University

#### ABSTRACT

There are lots of forests around the Korean rural villag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state of the forests by the 15 forests case study of the Kamgok region in Chonbuk-Do province, Korea.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forests lose mostly original form by the construction of road and forest clearing for the land development business. And almostly the form of the forests is a trapezoid or roundness.
2. The forests were remained on account of the Korean cemetery customs which is burying underground.
3. The conservation of the forests becomes more difficult because of the continuous development pressure.
4. Because the scale of the forests is so small, they aren't named as the natural resort forest by the forest law. So it will be the better alternative that they are conserved and used by inducing the concept of the village resort forest.
5. Because the ownership of the forests exists in a person or a family, the forests will be destructed continuously by the cemetery development.
6. The vegetation of the upper trees in the forests is the simple forests of *Pinus densiflora*, *Pinus rigida* and bamboo. The height of upper tree is average 10-12m. And average root diameter is 13-29cm. The age of the tree is average 50 years old.  
The state of the forests is mostly fine.
7. It is clarified that the price of the forest land is 3-5 times expensive than the other cultivated land.

8. The forests were made by the forefathers for the purpose of the practical use and were reforested in the era 1960s, 1970s.

## I.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는 1960년 1970년대에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속에서 국토의 심한 불균형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로 인하여 도시와 농촌 사이도 심각한 불균형을 가져와 도시는 과밀로 농촌은 과소로 양자가 모두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러한 속에서 농촌의 자연경관과 전통적인 요소들이 파괴되어 가거나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농촌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과 종합적인 환경의 열악성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농촌의 종합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에 농업소득의 증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농외소득 증대의 방안으로 농공지구의 조성, 부업단지의 조성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농촌은 아직까지 산업화의 여파가 덜 미친 지역으로서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곳이므로 농촌지역의 관광자원 개발이 중요한 지역개발의 방안으로 되어지고 있다. (박재철, 1988)

영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노변에 차를 끌고 와서 피크닉을 하거나 신문을 읽으면서 휴식을 취하는 Rural Recreation이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Rural Recreation 형태중의 하나이다. (Simmonds, 1975)

그 중에서 농촌의 도로나 마을 주변에 남아 있는 숲들은 한국적인 농촌 경관(Korean Rural Landscape)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행태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주민들이 적극적인 경관관리계획에 참여하여 주민이 주체가 되어 경관 보전과 동네만들기 운동이 1990년대에 진행되고 있다. (Tabada, 1992)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러한 숲들이 국토 경관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아무런 대책없이 방치되어 있고 버려져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숲들의 실태를 파

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들에 대한 적절한 보존, 이용, 관리의 대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게 하고자 하는데 있다.

## II. 연구의 방법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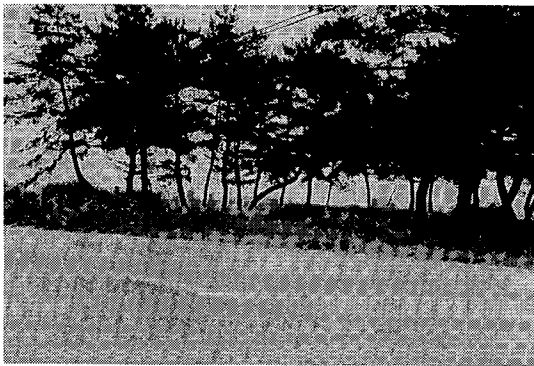
연구의 방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기존의 유사연구를 검토한 결과 김학범(1991)은 마을 주변의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숲을 중심으로 숲의 형성의 사상적 배경과 형태, 규모, 수종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연구하였으며 임봉구(1986)는 마을 주변의 정자목에 대하여 사상적 배경, 수종 및 형태, 형태 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그리고 서호석(1993)은 이러한 숲의 일부를 전통생활경림이라 정의하고 이의 조사내용을 연재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전북 서부평야부 지역의 농촌에서 나타나고 있는 숲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해서 그러한 모습이 전형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는 곳을 찾아서 이를 연구하기로 하고 그 대상지를 여러 군데 사전 답사를 한 결과 전라북도 김제군 원평(금산면 소재지)에서 정읍군 감곡면 소재지까지 710번 지방도 약 5 Km의 구간이 전형적인 전북 서부평야부지역(익산, 옥구, 김제, 부안, 정읍, 고창) 농촌의 숲의 경관을 잘 나타내고 있고 짧은 구간이지만 연속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어 대상지로 채택하였다. 이 중에서 도로에 인접해 있어서 접근성이 높고 앞으로 이용 압력이 높으며 도로 경관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독립되어 있는 숲 14군데를 조사하였다.

조사방법은 1992년 봄부터 시작해서 1993년 10월까지 7번에 걸쳐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주민, 관계공무원, 소유자와의 면담조사, 관찰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조사지역의 현황과 위치는 다음(그림 1)과 같다. 그리고 조사지역의 숲의 사진 현황은 다음(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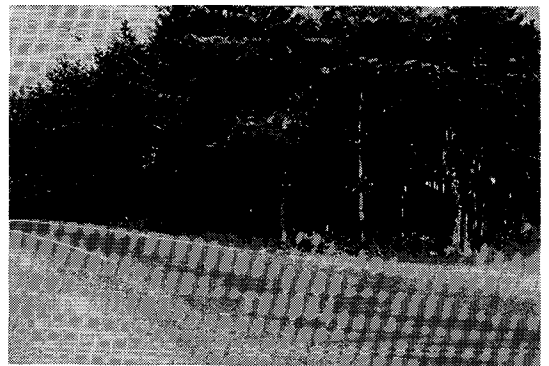
조사한 내용은 다음 <표 1>와 같이 숲의 위치, 면적, 형태, 지형, 토양, 시설등의 물리적 조건과



(그림 1) 조사지역의 현황 및 위치



1지역



11지역



6지역

상목, 하목, 지피 및 초화류, 갯수, 밀도, 수령, 수고, 근원 직경, 흉고직경, 식생상태 등의 생태적인 조건과 조림여부, 행태, 원인, 소유, 지가 등의 사회적 조건, 관련법규를 검토 하였다.

〈표 1〉 조사내용

물리적 조건	위치, 면적, 형태, 지형, 토양, 시설
생태적 조건	수종(상목, 하목, 지피 및 초화류), 갯수, 밀도, 수령, 수고, 근원 직경, 흉고직경, 식생상태
사회적 조건	조림여부, 행태, 원인, 소유, 지가

(그림 2) 사진현황

### Ⅲ. 결과 및 고찰

#### 1. 물리적 조건의 분석

물리적 조건의 분석에 있어서는 다음(표 2)와 같이 숲의 위치와 면적, 형태, 지형, 토양, 시설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찰해 볼 수 있었다.

먼저 숲의 면적을 보면 마을 주민들과의 면담 조사 결과 이러한 숲들이 현재의 상태보다 훨씬 규모가 큰 것이었는데 고속도로나 도로가 나고 밭으로 개간을 하면서 형태와 면적이 변하고 축소되어온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하여 작은 것은 300평에서 큰 것은 3,000평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따라서 전부가 1ha가 못되는 면적이었다.

형태를 분석하여 보면 사다리꼴 내지 부정형이 6개, 둥근형 내지 동산형이 5개, 삼각형 2, 선형이 1개로 되어 있어서 사다리꼴과 둥근형이 주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형을 보면 완경사지(경사도 2-7%)와 평탄지(0-2%)가 6개로 가장 많고 비교적 급경사지(7-15%)가 2개로 나타남으로서 숲의 대부분이 완경사지 내지는 평탄지에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양을 보면 양토가 11개, 양토내지는 미사질 양토가 2개, 양토 내지는 사 양토와 사양토가 각각 1개로 나타나서 대부분이 양토로서 토양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을 보면 묘지가 있는 지역이 9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밖에 임도, 원두막, 방공호, 비석, 인삼밭 등이 있었다.

#### 2. 생태적 조건의 분석

숲의 생태적인 분석에서는 식생의 상태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식생의 상태를 분석하는데 있어서는 수종은 상목, 하목, 지피류 및 초화류로 나누어서 종류만을 조사하였고 주로 단순림으로 되어 있고 하목의 발달이 미약하기 때문에 상목에 대하여서만 갯수, 밀도, 수령, 수고, 근원직경, 흉고직경 및 식생 상태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생태적인 조건 분석 중에서 수종 분석을 보면

다음(표 3)와 같이 상목은 적송, 리기다소나무, 대나무류가 주수종을 이루고 있으며 단순림이 대부분으로 대나무가 있는 곳 2곳을 제외하고는 적송 단순림이나 적송과 리기다소나무의 혼효된 수림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대나무류는 울타리 대용으로 식재되어 있었다.

하목으로는 아카시나무치수가 전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싸리나무류, 소나무치수, 리기다소나무치수, 참나무치수, 밤나무치수 등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지피 및 초화류로는 대부분의 지역에 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관계로 묘지 주변에 잔디와 소나무 밑의 쇠뜨기, 참억새, 쑥부쟁이, 산구절초, 미국 자리공 등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하목과 지피 및 초화류의 우점종을 보면 하목의 경우는 6지역만이 참싸리가 우점종으로 나타났고 다른 지역들은 모두 아카시나무치수가 우점종으로 나타났으며 지피 및 초화류의 경우는 1지역과 3지역, 10지역의 잔디, 4지역의 실새풀, 5지역의 이끼, 8지역의 피막이를 제외한 8개의 지역에서 참억새가 가장 우세한 종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생태적 조건 중에서 상목에 대해서 분석한 것을 보면 다음(표 4)와 같이 갯수는 최소 30개에서 6000이상까지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밀도는 제곱미터 당 평균 0.21주로서 5제곱미터 당 1주정도의 밀도를 보였고 수령은 25년에서 70년생까지의 범위로 분포되어 있는데 평균적으로 52년이 된것으로 나타나서 상당히 성숙한 수림임을 알 수 있었다. 수고는 수령과는 무관하게 전지역에서 거의 균일하여 평균적으로 10-12m의 수고를 보이고 있다. 근원직경은 평균적으로 13-29cm의 범위를 보이고 있고 흉고직경은 이보다 약간 적은 9-22cm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식생의 상태는 적송이 주가 되어 있어서 중간 이상의 양호한 지역이 대부분이고 불량한 곳은 한 곳 밖에 없었다.

#### 3. 사회적 조건의 분석



사회적 조건의 분석에 있어서는 다음(표 5)에서 보는 것처럼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남아 있게 되었으며 소유권은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거기에

서 이루어지는 행태는 어떠한지 지가는 다른 농지에 비하여 어떤 수준인지 등을 살펴보고 조림을 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보았다.

먼저 조림 여부를 살펴보면 식재를 한 곳이 10개로 가장 많았고 식재한후에 조림을 추가적으로

한 곳이 2개, 조림으로만 이루어진 곳은 2개였다. 따라서 조상들이 연료 채취 및 여러 용도로 활용하기 위하여 식재한 것이 대부분이고 조림은 60, 70년대 산림녹화시 조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물리적 조건 분석

구분 조사지역	위 치	면 적	형 태	지 형	토 양	시설(개)
1지역	금산, 구봉	300평	등근형	평단지	양토	방공호1 묘지1
2지역	관봉	1,000평	삼각형	평단지	양토 또는 미사질 양토	임도1
3지역	관봉	258평	사다리꼴	완경사지	양토	비석1 묘지1
4지역	관봉	1,000평	사다리꼴	완경사지	양토	묘지1 비석1 방공호1
5지역	계룡리, 장부	3,000평		완경사지	양토	임도2 묘지15~20
6지역	봉남면, 구성	800평		완경사지	양토	묘지18 (문중)
7지역	계룡리, 반룡	2,400평	동산형	구릉지	양토 또는 사양토	묘지14 임도1 인삼밭1 비석1
8지역	일호동	200평	등근형	완경사지	사양토	×
9지역	감곡면, 감산	100평	반원형	급경사지	양토 또는 미사질 양토	×
10지역	화봉리	595평	등근형	급경사지	양토	임도1 원두막 묘지3
11지역	감곡면, 방교	3,000평 이상	사다리꼴	평단지	양토	묘지4 비석4
12지역	감곡면, 방교	1,000평	삼각형	평단지	양토	×
13지역	석점	3,000평 이상	사다리꼴	평단지	양토	×
14지역	석점	455평	선형	평단지	양토	원두막1

〈표 3〉 생태적 조건 분석(1)

조사지역	구분	상 목		수		종	
		적	송	화	목	지	피 및 초 화 류
1 지역		적	송	아카시아 치수			
2 지역		적	송	소나무치수, 아그배, 아카시아, 짚레, 풀싸리, 참싸리		참억새, 쑥부쟁이, 산구절초, 쇠뜨기	
3 지역		적	송	벗나무치수, 아카시아, 풀싸리, 노각치수, 짚레, 밤나무치수, 이태리포플러치수, 개나리, 초피나무		잔디류(왕포아풀), 산구절초, 참억새, 쇠서나물, 미국자리공, 박주가리, 터리풀, 벌음썸바귀, 기생여뀌, 쇠뜨기	
4 지역		적	송	적송치수, 감나무치수, 밤나무치수, 아카시아, 파리, 조릿대, 풀싸리, 참싸리, 명석딸기, 개나리		맥문동, 쑥부쟁이, 참억새, 실새풀, 미국자리공, 쇠뜨기	
5 지역		적	송	갈참나무치수, 감나무치수, 조릿대, 풀싸리, 아카시아치수, 밤나무치수, 참싸리, 명석딸기, 신갈나무, 청미래덩굴, 개웃나무		이끼, 도라지, 난, 참억새, 산구절초, 실새풀, 고사리, 쇠뜨기	
6 지역		적	송	적송치수, 밤나무치수, 소태나무, 명석딸기, 풀싸리, 참싸리		참억새, 쑥부쟁이, 들국화, 나팔꽃, 산구절초, 쇠뜨기	
7 지역		적	송	자귀나무치수, 뽕나무, 적송치수, 아카시아, 풀싸리, 밤나무치수, 붉나무, 청미래나무, 명석딸기, 박주가리, 조릿대		참억새, 산구절초, 쑥부쟁이, 큰조롱, 미국자리공, 도라지, 기름나물	
8 지역		적	송	감나무치수, 밤나무치수, 아카시아, 청미래덩굴, 개나리, 풀싸리		잔디류, 쑥부쟁이, 산구절초, 큰조롱, 수크령, 산국, 나팔꽃, 피막이	
9 지역		대 나무 (왕 대)		아카시아			
10 지역		리	기 다 (주중) 적 송	소나무치수, 신갈, 가층, 짚레, 두릅, 조릿대, 청미래나무, 아카시아		잔디류, 미국자리공, 이고들빼기, 참억새, 풀싸리, 산구절초, 쑥부쟁이, 뱀딸기, 이끼류, 도라지, 맥문동, 쇠뜨기	
11 지역		적	송	아카시아치수, 신갈치수, 머루, 개벚꽃, 청미래덩굴, 명석딸기, 짚레, 풀싸리, 참싸리, 밤나무치수		잔디, 참억새, 미국자리공(多), 쑥부쟁이, 산구절초, 개여뀌, 맥문동, 난, 쇠뜨기	
12 지역		적	송	아카시아치수, 신갈나무, 머루, 개벚꽃, 청미래덩굴, 참싸리		참억새, 미국자리공, 쑥부쟁이, 산구절초, 개여뀌, 맥문동, 난, 피막이, 쇠뜨기	
13 지역		리 기 다		리기다치수, 아카시아치수, 감나무치수, 명석딸기		참억새, 박주가리, 쑥부쟁이	
14 지역		리	기 다 적 송	아카시아치수, 신갈나무치수, 감나무치수, 개벚꽃, 명석딸기, 참싸리		미국자리공, 참억새, 도라지	

〈표 4〉 생태적 조건 분석(2)

구분 조사지역	갯수 (상목)	밀도 (주/m <sup>2</sup> )	수령 (상목)	수고(m) (상목)	근원직경(cm) (상목)	흉고직경(cm) (상목)	식생 생태
1지역	30	0.03	70	10	14-35	10-30	양호
2지역	350	0.10	40	7-8	12-25	8-20	중
3지역	86	0.10	60	10-12	13-30	8-25	양호
4지역	251	0.07	60	10-15	21-39	14-34	양호
5지역	1,455	0.14	60~70	10-13	13-35	8-28	양호
6지역	170	0.06	40	8-10	14-25	10-20	중
7지역	499	0.06	리기다 (12-13) 적송 (6-8)	리기다 (12-13) 적송 (6-8)	리기다 (15-40) 적송 (13-30)	리기다 (12-13) 적송 (6-8)	양호
8지역	127 <sup>1)</sup> 리기다 (11)	0.19	10-12	12-12	11-20	7-15	불량
9지역			10	10	4-6	3-5	양호
10지역	477	0.24	리기다 (35-40) 적송 (70-80)	리기다 (17) 적송 (15)	리기다 (15-30) 적송 (15-42)	리기다 (8-20) 적송 (10-34)	중
11지역	6,000이상	0.60	70	10-11	14-25	10-20	양호
12지역	2,000	0.60	70	8-10	14-25	10-20	양호
13지역	6,000	0.60	25	10-15	9-28	10-25	양호
14지역	301	0.20	25	5-10	9-28	6-17	중
평 균	×	0.21	52	10-12	13-29	9-22	×

1) 전체 갯수가 127주이고 리기다소나무가 그 중에서 11주라는 뜻임.

다음으로 이러한 숲들에서 이루어지는 행태를 관찰에 의해서 분석하여 보면 대 부분의 숲에 묘지가 존재함으로써 성묘를 하거나 휴식을 하고 숲안에서 모임을 갖거나 간단한 운동을 하거나 작업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이러한 숲들이 남아 있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 9개지역에서 묘지가 나타남으로서 묘지가 그러한 숲들을 남아 있게 하는 요인 중에서 가장 큰 것을 알 수있고 5지역은 풍치보안림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법적으로 보전임지로서 보호를 받는것으로 나타났고 2, 3지역은 묘지는 없지만

고속도로변이나 도로변의 산림이어서 산림법(산림법 시행규칙 90조 3항; 국도, 고속도로, 철도연변 및 정기항로로 부터 가시거리 1,000미터 이내의 산림 중 자연경관의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군수가 고시한 지역의 산림훼손허가의 제한 규정)에 의해서 규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13, 14지역도 도로변에 위치한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산림으로서 도로경관유지를 위해서 산림훼손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지역의 대나무림은 한학자이신 부친의 사상적인 영향이 숲이 보전되는 근간

〈표 5〉 사회적 조건 분석

구 분 조사지역	조립여부	형 태	원 인	소 유	지가(만원)
1 지역	식재 (자연)	성묘, 휴식	묘지	사유	4
2 지역	식재	휴식	고속도로변 산림법	사유 (조대환)	4
3 지역	식재	성묘, 휴식 연료채취 간벌	묘지	사유 (송하룡)	5
4 지역	식재	성묘, 휴식 작업	묘지	사유 (최씨문중)	4
5 지역	식재	성묘	묘지 풍치보안림	사유 (허씨문중)	4
6 지역	식재 (자연)	성묘	묘지	사유	3-4
7 지역	식재 및 조립	성묘	묘지	사유 (강열)	3-4
8 지역	식재	휴식	자투리땅	사유	3-4
9 지역	식재 (자연)	감상	선비정신, 방풍, 방음차폐, 방한	사유 (한학자)	4
10 지역	조립 및 식재	성묘, 휴식	묘지	사유 (부재지주)	3-4
11 지역	식재	성묘, 휴식	묘지	사유 (송주연)	4
12 지역	식재 (자연)	모임, 휴식	묘지, 산림법	사유 (김현정)	4
13 지역	조립 (자연)	휴식, 모임	산림법 도로경관유지	사유 (김현정)	3
14 지역	조립	휴식	도로 인접부 경관유지	사유 (김현정)	3

으로 나타났고 특히 대나무림의 경우에는 방풍, 방음, 방한, 차폐 기능을 위해서 조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지역의 경우는 주변 땅을 개간하고 나서 지형적으로 개발하기 어려워서 남아 있는 짜투리땅으로 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소유에 대하여 분석하여 보면 전부가 다 사유였고 그 중에서 개인 소유가 12곳이었고 문중 소유가 2곳이었으며 사유 중에서도 현지인

소유가 8곳, 부재지주가 4곳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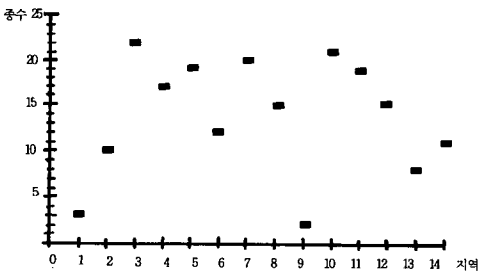
지가를 분석하여 보면 평당 3-5만원 수준을 보임으로서 인근 전답이 평당 1만원 인데 비하여 3-5배의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조사지역의 대부분이 도로에서 30미터 이내의 도로변이므로 접근성이 좋고 이러한 땅들이 임야로 되어 있어서 묘지로 사용하기에 좋은 여건을 가졌기 때문에 수요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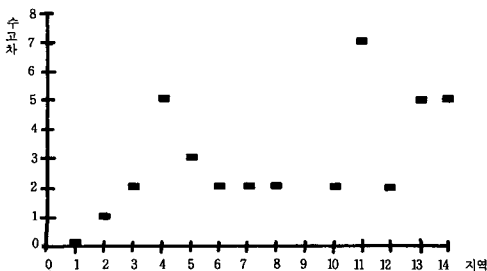
4. 상호 관련 분석

먼저 지역과 종의 상호관련성을 보면(그림3)와 같이 9지역이 총 종수가 2종으로 가장 적고 3지역이 면적은 258평으로 작음에도 불구하고 22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적으로는 13.9종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 내에서의 수고의 차이는(그림4)와 같이 11지역에서 7미터의 차이로 가장 많고 3지역을 비롯한 8개 지역에서 1-3미터의 수고차를 보임으로서 수고가 거의 균일한 숲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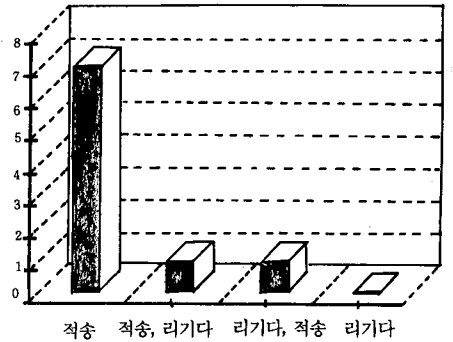
상목의 수종과 묘지의 수와의 상관관계를 보면(그림5)와 같이 적송단순림이 묘지가 설치되어 있는 숫자가 7지역으로 가장 많고 적송이 우세하고 리기다소나무가 혼효되어있는 숲과 리기다소나무가 우세하고 적송이 혼효되어 있는 숲이 묘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각각 1지역으로 나타나 적송림에 묘지가 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밀도와 근원직경 사이에도 밀도에 관계없이 근원직경이 가장 작은 것의 경우 10-15센티미터로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그림 3) 지역의 총 종수



(그림 4) 지역내에서의 수고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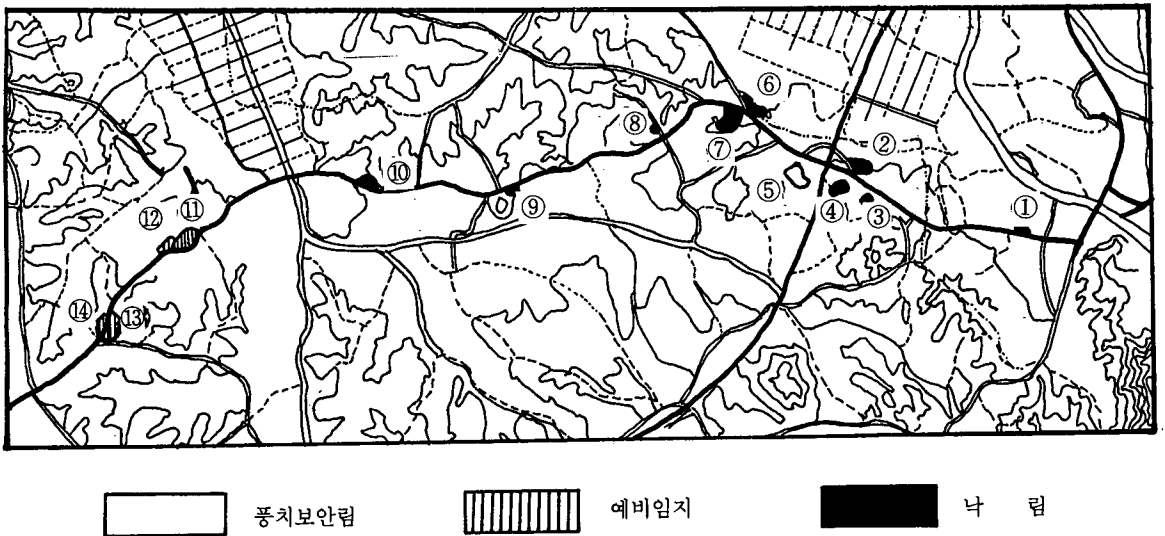
(그림 5) 수종과 묘지와의 관계

면적과 밀도, 면적과 근원직경 간에도 거의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면적과 식생의 종수 및 면적과 밀도 사이에도 어떤 상관관계를 찾아 볼수 없었다.

5. 관련법규의 검토

본 연구의 대상지역은 다음(그림6)에서 보는 것처럼 5지역이 보전임지 중에서 풍치보안림으로 지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준보전임지의 예비임지 또는 낙림으로 되어 있어서 보전이 법적으로도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의 산림지에 대한 이용의 흐름이 보전임지는 적극적으로 보전하되 준보전임지 중에서도 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이 되어 앞으로 이용이 활성화 될 지역은 그중 나온 편이지만 연구 대상지와 같이 대부분이 도로변에 위치해 있어서 농촌경관에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인데 법적으로도 거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예비임지 낙림으로 되어 있어서 다른 용도로의 개발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자연 휴양림 조성계획수립 기준(산림법시행규칙 27조)을 보면 국유림 또는 공유림의 경우에는 100헥타르 이상, 사유림의 경우에는 30헥타르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본 연구의 조사지역에서 보는 것처럼 전부가 3,000평이하(1헥타르 이하)인 경우는 산림이 양호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 하더라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림 6) 산지이용계획도

#### IV. 요약

김제 원평에서 정읍 감곡 사이의 710번 지방도 5 Km 주변의 숲에 대하여 조사 연구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대부분의 숲들이 원형을 보전하지 못한 채 고속도로 건설이나 도로 확포장, 농지 개간, 주거지 신설 등으로 그 원형이 파괴되어 왔고 축소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형태는 사다리꼴이나 둥근형이 주조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이러한 숲들의 대부분이 환경사지나 평탄지에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의 변경이 쉬웠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매장 풍습이 그나마 이러한 숲을 지금의 상태로 남아 남아 있게 하는 큰 원인이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 3) 이러한 숲들이 대부분 법적으로는 준보전임지로 지정되어 있고 준보전임지 중에서도 예비임지, 낙림으로 되어 있어서 다른 용도로의 전환이 용이하게 되어 있어서 법적으로도 보전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 4) 이러한 숲들이 규모가 작으므로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하기도 어렵게 되어 있어서 임상이 양호하고 접근성이 좋더라도 보전과 이용이 법적으로 어려우므로 마을 휴양림 개념을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보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 5) 소유도 대부분 사유 내지는 문중 소유로 되어 있고 이들의 이용이 묘지로 숲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묘지로 잠식되어 나갈 것으로 보여진다.
- 6) 식생을 보면 상목으로는 소나무, 리기다 소나무, 대나무 등의 단순림으로 되어있고 수고는 10-12m, 흉고직경 9-22cm, 수령은 평균 50년 가량으로 나타났고 식생상태는 대부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목으로는 아카시나무 치수, 싸리나무류, 소나무 치수, 리기다소나무 치수, 참나무류치수, 밤나무치수 등이 전반적으로 우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하목 중에서 가장 우세한 종은 아카시나무치수였고 지피 및 초화류의 가장 우세한 종은 참억새로 나타났다.

- 7) 지가는 숲지역이 인근의 전답보다 3-5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묘지로 이용하기 위한 수요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 8) 식생은 조상들이 연료 등으로 쓰기 위하여 식재한 것이 주를 이루고 그 이후 60, 70 년대에 조림을 부분적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 引用 文 獻

1. 김학범(1991) 「한국의 마을 원림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 임봉구(1986) 「한국농촌마을 정자목 공간의 유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서호석(1993) “한국의 전통 생활환경 보전림(1)(2)(3)”, 「환경과 조경」, 1, 2, 3월호.
4. 농촌개발연구회(1988) 「농촌개발론」, 형설출판사.
5. 박재철(1988) “한국농촌지역관광자원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제 16권 2호.
6. 박재철(1989) 「농촌지역도로경관조성기법에 관한 연구」, 전주우석대학논문집 제 11집.
7. 조무연(1989) 「원색식물도감」, 서울: 아카데미서적.
8. 조무연(1989) 「원색수목도감」, 서울: 아카데미서적.
9. Simmonds, I. G.(1975) *Rural recreation in the industrial world*, Dnold Ltd, London.
10. The 29th IFLA World Congress (1992) *Proceedings, tradition and creation*, Seoul: KFLA:129-171.